



|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배포 후 즉시 사용 | 배포 일시 | 2022. 9. 30.(금)        |
| 담당 부서 | 국무조정실      | 책임자   | 팀 장 박영철 (044-200-2136) |
|       | 외교안보정책관실   | 담당자   | 사무관 황상운 (044-200-2135) |

## 한덕수 국무총리,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특별고문 위촉장 수여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30일(금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림 2030 부산세계박람회 특별고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.
  - \*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부산 유치 관련 심의, 이행점검 등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, 위원장 2명(국무총리, 대한상의 회장)을 포함하여 29인의 정부·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고문은 위원장이 위촉
  - 최경림 특별고문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시까지('22.12.31.)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특별고문 역할을 맡게 된다.
  - 오늘 위촉식에는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, 박정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 등이 배석했다.
- 최경림 특별고문은 G20 국제협력대사, 주제네바대사,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, 자유무역협상 교섭대표 등을 역임했으며, 주요국과의 FTA, WTO·UN 다자협상 등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외 협상의 주역으로서 국제적으로도 저명한 외교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된다.
- 한 총리는 특히 유치경쟁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의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범정부적 교섭역량이 최고조로 발휘될 수 있도록, 최 고문이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위있는 조언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.
- 한 총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으로서는 유치교섭 상황을 매일 점검·지휘하고 있다. 또한, 영향력 있는 외국인사의 초청·면담뿐 아니라 통화, 서한, 이메일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요국 고위급과의 접촉 및 교섭활동을 직접 수행해오고 있다.